

새로운 視角에서 본

多元多次 연립방정식 시대의 石油

1. 多元多次 연립방정식 시대의 石油

石油가격의 향배가 세계경제의 관건이 되고 있다. 그것은 인플레이 무드의 재연, 재고투자의 활발화, 금리상승, 채권 및 주가의 하락, 환율변동 등이 油價에 인상압력을 불어넣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선물시장이 발달한 오늘날 油價변동은 환율, 금리, 주가지수를 중심으로 한 금융상품을 자극하고 그 변동폭을 확대시키고 있다. 금융경제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油價형성을 선도하는 것으로 NYMEX의 선물시세를 들 수 있다.

제1,2차 석유위기 때에는 油價변동이 경제기반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가를 예측할 수가 전연 없었다. 그러나 그후 금융선물시장이 세계적인 규모로 해를 거듭할수록 크게 발달했기 때문에, 石油라는 상품의 변동이 전세계의 금융 및 상품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그 규모와 폭 양면에 있어서 더욱 크게 나타나게 되었다.

石油과 금융시장의 변동은 상호작용 관계에 있기 때문에 石油가격을 논할 경우는 반드시 석유가격에 크게 영향을 미치는 금융상품 및 경제변동, 예를 들면 인플레이율, 금리, 환율 등을 고려해야 한다. 이와같이 최근에는 석유가격을 생각할 때 그밖에 다수의 변동요인을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었다. 다시말해 石油도「다원다차 연립방정식시대」를 맞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계의 우수한 석유경제학자인 MIT의 에델만 교수는 石油산업만큼 미래요소에 의존하고 있는 산업은 없다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이 담고 있는 바와같이, 石油문제의 검토에 앞서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미래를 어떻게 예측하느냐 하는 미래 예측능력의 확보이다. 요 몇년동안 거대 메이저 사이에서마저 기업순위의 변동을 가져오게 한 최대요인이야말로 미래예측능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 이와같이 생각할 때 앞으로의 石油人 또는 석유를 생각하는 사람에게 요구되는 것은 다원다차 연립방정식을 풀어내서 미래 예측능력을 높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국제경제의 새로운 흐름

多元多次 연립방정식을 풀기 위해서는 정치, 경제, 사회 등 石油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되는 제차원에서 매일 일어나는 현상에 민감할 필요가 있다. 과거 1년동안을 놓고 생각해 볼때 석유경제의 조류변화를 나타내는 사건들이 있

1950년대에 자유세계의 GNP중 50%를 점하고 있던 美國 경제는 이제 美·日이 합해야 30%가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더구나 요즘에 美國은 세계 최대 채무국으로 전락, 자국경제운영을 對채권국인 日本 및 西獨으로부터의 자유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달아 일어났음을 알 수 있다. 정치적인 면에서는 고르바초프 소련서기장이 추진하는 소련과 공산권에 있어서 대개혁, 미소정상회담과 데탕트의 추진, 대처 수상의 3선, 中東정세의 긴박화를, 경제면에서는 G5, 円高현상과 달러화 약세, 선진국에 있어서의 민영화 움직임, 美日간 경제 마찰의 심각화 등을 들 수 있다. 이와같이 얼핏보면 석유정세와 무관한 것처럼 보이는 세계정치, 경제상의 사건은 대체로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1) 초강대국의 콘도미니엄(두 나라에 의한 공동 지배), 팩스·아메리카나의 종언과 팩스 컨설티즈(협조체제) 시대의 개막

1950년대에 자유세계의 GNP중 50%를 점하고 있던 美國 경제는 이제 美·日이 합해야 30%가 되는 수준까지 떨어졌다. 더구나 요즘에 美國은 세계 최대의 채무국으로 전락, 자국경제운영을 대채권국인 日本 및 西獨으로부터의 자본수입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와같은 상황 아래서는 사기업으로서의 메이저들은 물론, 美國정부로서도 다른 나라 石油의 안정공급의 책임을 떠맡을 여유는 없다. 따라서 中東의 긴장이나 石油의 안정공급에 관계되는 안보이론을 내세워 日本, 西獨등 경수수지 흑자국에 응분의 부담을 지우는 것이 자연스럽게 되었다. 美·日경제마찰도 기회있을 때마다 표면화되었으며, 美·日간의 불균형시정, 日本의 부담증대, 시장개방, 규제계의 철폐, 때로는 선진국간의 정책 협조등의 구실로 이용될 것이다.

지난 3월 중순에 美 에너지부가 발표한 보고서에도 핵심은 原油수입 과점금의 방지에 두었다기 보다는 페르시아만으로부터의 石油수송통로를 확보하기 위한 비용분담을 동맹국에게 요구하는 색채가 농후한듯한 느낌마저 들었다.

(2) 共產圈의 개혁에 의한 디플레 효과

인적자원, 물적자원 및 재원이 불충분한 나라가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생산 및 유통수단을 국가에 집중시키는 경제체제가 공산권 경제이다. 국영사업은 민간사업에 비해 효율은 떨어진다. 그러나 세계적으로 전쟁과 혁명이 불가피해 세계경제는 필연적으로 인플레이를 전제로 해야 한다는 사관에서 볼 때, 국가안전보장에 직결되는 산업은 효율보다도 국가에 집중할 필요가 있었다. 근대전에 있어서 핵무기나 우주병기처럼 막대한 재원을 투입, 이용불능의 무기 부담으로 인플레이에 국가경제가 감내하지 못할 정도가 된 것을 보면 디플레시대에 있어서 이것은 국가의 체제를 뒤흔들 문제로 발전할 것이다. 고르바초프의 개혁이 세계적으로 디플레 와중에서 시작된 것은 그와같은 배경으로 설명된다.

소련의 기업법, 中共의 파산법, 헝가리의 주식상장, 체코의 사기업등은 모두 경제에 효율성을 도입하는 효과를 갖고 있다. 이것은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자본과 인적자원의 효율화를 촉진하고 나아가서는 인플레이 억제와 디플레의 추진효과를 발휘할 것이다.

3. 自由化의 적극적 의미

1930년대부터 반세기동안 계속된 인플레이 경제하에 있어서는 인플레이율이 명목공리를 상회하는 것이 통상이었다. 따라서 실질공리는 저하 또는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도 있었다. 또 1960년대처럼 지속적인 확대기조에 있었던 때에는 경제는 자연적으로 확대되고, 제품은 생산만 하면 「코스트 플러스」로 판매되기 때문에 인플레이 하에서는 먼저 원료

조달이 우선일 수 밖에 없다. 다시 말해 물자를 확보하는 데는「돈을 아끼지 말라」는 생각이 조성되어 왔다.

제1차 석유위기는 물자우선적 인플레이 발생의 말기에 일어난 사건이었다. 당시는 심각한 인플레이 하에서 달러가치의 하락추세가 진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산유국은 인플레이로 가격이 상승되는 石油를 가치하락이 예상되는 달러貨와 바꾸려고 하지 않았다. 즉 저축수단으로서 石油를 지하에 온존시키는 것이 유리하다는 선택을 한 것이지 石油의 물리적 양이 절대 부족해서 그런 것은 아니었다.

인플레이시대의 석유위기를 경험한 소비국 정부의 태도는 급변했다. 대부분의 소비국정부는 특별법을 제정, 배급제와 같은 비상대책, 상품선물시장의 폐쇄, 가격통제등으로 정부의 개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조치를 취했다.

이에대해 제2차 석유위기의 소비국들의 대응은 제1차 때와는 대조적인 움직임을 보였다. 시장기능의 이용을 중심으로 1975년에「작은 정부와 국영기업의 민영화, 인플레이 억제에 위한 통화주의」라는 가치를 내걸고 대처수상이 등장했고, 다음해 자유시장 경제를 신봉하는 레이건 대통령이 등장한 것은 디플레이시대의 개막을 상징하는 사건들이었다. 이와같이 제1차 석유위기와 제2차 위기는 그 의미에서 커다란 차이를 가지고 있다.

석유파동이 극복된 것은 에너지절약 정책실시등으로 기술산업구조 전환된 때문이다. 이보다도 디플레이시대에 불가피한 제품시황의 대변화에 대응기 위해 선물시장이 정비된 사실 또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철강업을 예로 들어보자. 철강업은 石油가 크게 필요한 업종이 아니므로 제철 프로세스에 있어서 石油의 코스트증가를 완전하게 극복했다. 그러나 1980년대에 들어 세계적인 경제성장률의 저하, 산업구조의 전환에 따른 철강수요의 혼미, 산업계의 원료 전환 움직임, 수입품과의 경쟁등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자 기술은 만능적인 치유책이 아니었다. 국내의 생산과 수요가 맞아, 적정 가동률이 보장되었던 때에는 제품가격의「코스트 플러스 방식」이 통용되었다. 그러나 공급과잉하에서는 제품시황의 침체경향은 피하기가 어렵다. 제품은 앞으로 가격이 떨어질 조짐이 보이면 원료수입시 또는 생산시점에서 코스트 플러스 베이스로 팔린다는 보증이 없다. 코스트를 회수하는 수단으로는 선물시장에서 매도 헷징 방법이 있으나 철강에는 합당한 선물시장이 존재하지 않는다. 즉 디플레이시대에 불가피한 제품가의 하락추세에 지금까지의 코스트 플러스 생산자 가격제도는 사용되지 못했다.

이와같이 제품가격이 하락될 가능성이 높은 디플레이 경제 하에서는 가격하락에 의한 손실을 헷징하는 수단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것이 인플레이, 성장일로의 경제에서는 투기장으로 보이는 선물시장이 발달하게 된 배경이다.

4. 石油人の 인플레이적 발상

이상과 같이 인플레이 경제는 정치적으로도 경제적으로도 종래와는 전연 다른 새로운 발상을 필요로 하고 있다. 그것은 전후의 성장, 제조업 우선, 인플레이를 주어진 것으로 보는 사람들에게는 상당히 엄격한 요구라고 말할 수 있다.

石油에 국한되지 않고 전략산업이라 불리어지는 산업에서는「오늘은 불경기지만 일단 유사시에는」이라는 긴급시대책론까지 주창되는 경향이 높다. 그러나 이것은 국제분쟁 해결 수단을 전쟁에서 구하지 않을 수 없었던 시대의 유물이다. 미·소간의 대팽프 협의에서 나타난 바와같이 핵무기를 대량으로 보유하는 것 자체가 국가경제에 막대한 부담을 강요하게 되었다. 월남전쟁과 소련의 아프간침공에서 입증된 바와같이, 무력으로 승리한자는 무력적 우위를 유지하기 위한 부담때문에 경제에서 실패했던 사례가 있다. 이란·이라크의 7년간의 전쟁에서 얻은 교훈은 무력은 이제 국제분쟁의 해결수단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

제2차 세계대전은 石油확보 전쟁이라 불리어지고 그후 4차에 걸쳐 아랍·이스라엘간 전쟁에 있어, 어떤 때는 石油가 무기로서 이용되고 또 어떤 때는 石油가 커다란 분쟁의 씨앗이 되기도 했다. 또 최근의 페르시아灣의 긴장이 石油시황을 크게 움직이는 상황아래 石油가 여전히 전략물자는 견해가 石油人 사이에 지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石油人에게 그 이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인플레이적인 발상, 다시 말해 물자와 화폐사이의 밸런스에 있어서는 물자쪽이 선호되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간의 균형에 있어서는 하드웨어가 선호되는 경향이 짙다는 것이다. 石油人에게 이와같은 생각이 주류를 형성하게 된 몇가지 이유가 있다. 국제 石油 카르텔과 그의 형성시기, 계속된 독과점 石油의 특수한 거래형태 등이 그것이다.

국제 石油 카르텔은 1928년에 결성되었다. 1929년은 월街的 대폭락 바로 직전이다. 당시 폭락을 계기로 세계경제는 금세기 최대의 디플레이에 돌입하게 되었으나, 석유산업은 이 카르텔의 기본인「현상유지 협정」과 그것을 보완하는 3개의 협정이 준수되었기 때문에 공급과잉에 의한 가격폭

최근 1-2년간은 국제경제에서 일본의 상대적 지위가 상승되었고, 円高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日本이 세계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점차로 국제사회에서의 커다란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금본위제도가 무너지고 지폐본위시대로 이행하게 되면 국제간의 불균형의 시정은 환율과 국제적인 정책협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락은 없었다. 그리하여 1930년대 중반에 세계가 전쟁체제에 돌입한 이래 약 반세기동안 세계경제는 인플레이션을 경험하여왔다.

메이저에 의한 카르텔과 그 체제를 계승한 OPEC의 과점체제하에서는 石油는 특정 소수자만의 참여가 허락되는 밀실에서 구매자와 판매자를 상대로 거래가 이루어져 왔다. 시장은 불특정 다수인이 참가하면 참가할수록 규모가 확대, 투기자본은 증대되어 커다란 가격변동이 없는 것이 일반적이나 상대거래는 오히려 과잉과 부족을 확대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같은 환경에서 반세기 이상에 걸쳐 石油는 소수의 석유상인들에 의해 거래가 이루어졌던 특수상품이다. 따라서 불특정, 다수인이 참가하고 더구나 투기자금이 유입되어 있는 선물시장은 도박장이지 결코 본래 의미의 石油거래시장이 아니라는 생각이 높아지고 있는데, 당연한 발상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박이란 우연성에 돈을 거는 행위인데 반해 현재의 선물시장은 재고분을 막기위한 헷지 판매, 수요픽업을 겨냥한 선매, 국제자본 이동의 실태 및 나라별 경기차를 인식한 환율 및 금리의 선물등 제각기의 경제관을 실증하는 행위의 場이므로 우연성에 돈을 거는 도박과는 개념이 다르다.

5. 변모하는 산업정책

최근 日本의 通産省의 석유정책방향은 크게 변화되고 있다. 이와같이 通産省의 정책을 바꾸어 놓은 주된 요인은 두가지 재판, 즉 4대 공해재판과 석유카르텔 재판이었다. 이 두 재판에 의해 대규모 공업화 노선을 행정지도를 통해

추진하는 것이 불가능해졌고 통산성은 앞으로 산업사회에 고유한 비전을 제시할 수 있는 노선을 걸을 수 있게 되었다. 일련의 비전발표가 그것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전후의 산업정책은 낙후산업이나 국내산업의 보호 혹은 명예로운 철수, 전략산업의 육성등 산업조정, 업종간 조정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산업구조 정책이 중요정책의 중심이 되었다. 특히 최근 1-2년간은 국제경제에서 일본의 상대적 지위가 상승되었고, 円高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日本이 세계경제의 발전과 안정을 위해 점차로 국제사회에서의 커다란 역할을 떠맡게 되었다. 금본위제가 무너지고 지폐본위 시대로 이행하게 되면 국제간의 불균형의 시정은 환율과 국제적인 정책협조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최선의 산업정책은 거시경제, 환율 그리고 산업구조정책이 정책의 3대지주로 자리잡기에 이르렀다. 이리하여 최근에 통산성이 발표한 제정책에는 종래와는 달리 거시경제의 비전이 담겨지게 되었다.

G5 또는 G3 제국간의 정책협조가 추진된다면 소속국의 기업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쟁을 통하여 경쟁력의 향상과 합리화를 도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물자, 금전, 인력이 부족한 시대에 설립한 국영기업의 민영화가 촉진되어 자유시장의 경쟁력은 향상될 것이다. 이것이 자유화의 적극적 의미인데 일단 자유화되면 취약기업은 도태된다는 소극적 의미를 우려할 필요는 없다.

석유산업이라고 역시 예외일 수는 없다. 첨단기술의 발달과 산업구조의 변혁에 의해 石油는 이미 King of Kings에서 One of them의 지위로 변화되었다고 하나, 石油자신이 그의 코스트 경쟁력을 현재 이상으로 높이지 않는다면 One

of them로서의 지위도 더욱 떨어질 가능성조차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오히려 자유화를 석유산업의 국제사회에 있어서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적극적으로 이용하는 자세가 요구된다.

6. 미묘한 균형상태에 처한 세계경제

세계경제는 현재 지극히 미묘한 균형상태에 처해 있다. 금년 2월의 루블 G5로부터 6월의 베네치아 정상회의까지 선진공업국은 달러화의 안정에 부심하여 왔는데, 그것은 달러화가 안정되지 않으면 현재 세계경제의 최대 과제인 국제자본이동의 확보가 실패로 돌아갈 위험성이 높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면 자본잉여국인 日本이나 西獨으로부터 최대 자본부족국인 美國으로 자본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美國의 금리는 급등, 美國경기가 침체될 우려가 있을뿐만 아니라, 누적채무 開途國의 부담을 가일층 증대시켜 美國의 은행 나아가서는 세계 금융시스템에 불의의 사태를 야기시킬 위험마저 예상된다.

이것을 막기위해 선진국에서는 개발도상국에의 융자금이 많은 은행의 대출금이 누적증가되어 미·일 금리격차 확대에 따른 달러투자자의 유인이 발생, 日本정부의 기관 투자자에 대한 美國국채구입요청등과 같이, 달러 폭락의 위기를 초래할지도 모르는 국제자본 이동의 중단을 막을 수단이 강구되어 왔다.

7. OPEC의 선진국에의 의존도

세계경제를 선도하고 있는 G5가 세계경제가 정상적으로 돌아가 국제자본이동이 원만하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한다고 약속했다면 전체적으로 OPEC가 채무국으로 떨어진 이상 그들로서도 선진국에의 의존으로부터 빠져나오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난 6월말의 OPEC 총회는 기본적으로는 베네치아 정상회의 정신을 받아 현상유지의 결론으로 폐막했다. 채무국으로 전락, IMF등과 차입교섭을 벌이고 있는 나라는 물론 대외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도 原油의 판매, 자산의 운용에 관한 서방선진국에의 의존도는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 그 때문에 선진국경제에 파란을 일으킬지도 모르는 결정은 피해가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 올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니다.

지난 7월 原油가격이 꾸준한 안정세를 보인 이유는 OPEC

의 생산조정 이외에 몇가지 중요한 요인이 겹쳤기 때문이다. 그중 최대의 요인은 中東정세의 긴박화다. 中東정세는 지금 두 가지로 긴박해 있다. 하나는 페르시아灣 정세이고 또 하나는 동지중해 지역을 둘러싼 中東평화의 움직임이다. 페르시아灣에서 이라크가 제3국의 유조선 공격을 개시한 것은 지역분쟁을 국제화하는 것보다 강대국의 개입을 초래 그들의 중개에 의해 전쟁종료를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할 수 있다.

이라크의 저의는 분쟁의 국제화란 점에서는 성공, 국제연합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정전 결의까지 끌어냈으나 이 지역에 지금까지 압도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온 美國에 대해서는 골치아픈 사태를 발생시켰다. 그것은 79년의 캠프 데이비드에서 이집트와 이스라엘간의 단독 평화협정을 체결한 이후 中東에서 손을 떼 소련에게 페르시아만에 군함 파견을 부활하도록 하는 구실을 주었다.

그뿐만 아니라 전부터 美·蘇에 의한 패권주의에 반대한 파키스탄, 아프가니스탄 게릴라등의 소련 주변국가를 지원 해온 中국이 이란에 대함미사일을 제공하여 페르시아만에 편승함으로써 사태를 더욱 복잡하게 했다. 그와같은 강대국의 공동개입이 석유시장에서 갖가지 억측을 불러일으켜 선물시장이격을 상승시키는데 부채질을 했다.

그러나 미·소 양국 모두 이란·이라크 전쟁을 이란의 승리로 이끌고 싶어하지 않는다는 점에서는 이해가 일치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것은 中東문제가 페르시아만 밖에서 동지중해 지역이라는 두 개의 중심을 갖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후자에 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팔레스타인인들이 아라파트 지휘하에 재결속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위협이 되는 것도 레바논 정세를 한층 더 복잡하게 만들었다. 레바논에서는 이란이 시아파 혁명을 이어받아 시아파 회교도의 일부가 대 이스라엘 전쟁도 불사한다는 태도를 보여 제5차 中東전쟁의 위험성이 가중되고 있다.

이와같은 정세하에서 만일 이란이 이라크를 무력으로 제압한다면 中東전역에 이란의 영향을 받아 과격주의가 확산돼, 美國의 최대 동맹국인 이스라엘을 비롯한 페만 보수파 산유국과 이집트, 요르단등의 우방국에 정세불안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국내에 대량의 유테인과 회교도를 가지고 있는 소련에게도 이란 승리의 위험성은 마찬가지다. 더구나 中국이 이란을 지원하게 되면 소련은 이번에는 미국과 공동으로 유엔 安保理가 정전을 결의하는 방안을 선택할 것이다.

산유국으로서 70년대와 같이 原油가격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다는 것을 주장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OPEC 13개국중에서 대외 순자산에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불과 4개국, 그중 사우디아라비아는 현재와 같이 산유량 조절국 역할을 계속하는 한 대외 자산이 2년이 채 못가 바닥이 나게 되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보아 채무국이 되어버린 OPEC가 만일 70년대처럼 高油價정책을 도모하게 되면 세계의 인플레이션은 가중돼 마침내 금리상승이 뒤따르고 결과적으로 스스로의 부담을 증대시킬 것이다.

세계산유량의 30%도 채 못되는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는 OPEC는 이제 채무국으로서 IMF나 선진국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차입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환율이나 금리변동의 영향을 받기 쉽고 달러가치 하락에 의한 수입감소를 커버한 채비협정 당시와 같은 능력은 없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선진국, 특히 G7제국이 모인 베네치아정상회의에서 현상유지를 결정한 후에 열린 OPEC 총회가 현상유지 노선을 추구한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만일 달러가치 하락이 중지 또는 하락속도가 떨어질 경우, 최근과 같은 石油소비 신장세는 기대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IEA도 앞으로 1년간 회원국들의 석유소비신장은 별로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같이 석유수급이나 가격을 고려할 경우에도 바야흐로 환율이나 금리동향을 동시에 고려하지 않으면 안되는 시대, 다시말해 다원다차 연립방정식의 시대에 진입했다고 말할 수 있다. 산업정책이 巨擘 경제나 환율을 동시에 고려해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石油문제를 해결하는 변수도 재래개념으로는 생각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성이 있다. □

< 순간석유정책 >

□ 석유개발동향 □

독립계石油會社 南美國가 진출급증

독립계 石油회사들이 南美國가의 광구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세계 油價가 배럴당 15달러 이상의 수준에서 安定을 유지하자 美國을 비롯한 유럽, 日本의 독립계 석유회사들이 다시 외국의 유망광구를 찾아나서고 있는데, 특히 南美國 지역에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외국 투자유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콜롬비아의 경우 외국 독립계 회사들은 기존의 Magdalena지역 뿐만 아니라 처녀地 Lianos지역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보이면서 탐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콜롬비아에서는 Occidental사에 의해 84년 발견된 Cano Limon유전 이래 대형유전의 발견에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으나 다가오는 탐사시점에 많은양의 시추가 행해질 예정이며 대형유전 발견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콜롬비아보다 규모는 작지만 에콰도르 石油탐사 활동에도 많은 석유회사들이 참여하고 있다.

제16광구의 경우는 운영권자 Conoco를 비롯해 Murphy, Odeco, Nomeco 그리고 台灣의 OPIC가 참여하고 있으며, 제12광구에는 운영권자 Tenecco를 비롯 우리나라의 油公, 덴마크의 Moersk, 美國의 CSX社 등이 참여하고 있다. 이밖에 2 광구에 ESSO, Hispanoil등이 최근 정부측과 탐사협정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진행중인 제5차 광구분양에도 많은 石油회사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다.

한편 제3차 광구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알젠틴의 경우는 현재 많은 석유회사들이 광구입찰에 참여하기 위해 기존의 데이터를 검토하고는 있으나, 최근의 정치불안이 석유 회사들의 참여를 망설이게 하고 있다.

알젠틴은 최근 선거에서 야당인 페론당이 승리했는데 전문가들은 페론당이 자원민족주의를 표방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투자의 여건을 악화시킬 것이며, 이미 알젠틴에 투자하고 있는 외국회사들도 회생을 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